

새해가 됐지만... 선학원 탈종단화 가속 승적 독립·장로원 설치

삼보정재 외부유출 방지 취지 '법인관리법' 폐지만 거듭 주장

종단이 선학원과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파격 제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이사회가 독자적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선학원은 지난 19일 서울 경운동 재단법인 선학원 회의실에서 '병신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사장 법진스님은 "대화의 첫 걸음은 무조건 법인관리법의 폐지"라며 "법이 폐지되고 선학원의 인사·재정·운영에 대한 간섭이 없다면 이사장직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갈등 상황을 두고 도제들이 불안해 할 것 같은데, 대비책은 있느냐"는 질문에 "자구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수계산립 개설과 승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 상반기 '제남 70, 법랍 40세 이상의 장로(니)로 30명 안팎의 장로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탈종단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학원 이사회의 주장에 불교계 내부에서는 법인관리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만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이 법은 법인 소속 사찰에 관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적시한 취지의 종법이다. 특히 종단과 사찰 출자자 설립된 법인이 일부 스님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권한이 남용돼 삼보정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있다. 분원장 임명의 경우에도 법인 추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법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종단동맹을 거부하는 선학원 이사회를 두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현스님은 종단과 선학원은 '한 뿌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화를 통해 종단과 화합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현스님은 "공심을 갖고 한국불교를 바라보면 큰 틀에서 서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bulgyo)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첫 개설

포교원, 온라인과 연수 병행 운영 이수시 선혜 품계 신청 자격 부여

조계종 신도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식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송목스님)은 "신도법 제13조와 제15조에 의거해 신도 교육제도를 안착시키고 종단 지도인력(群) 구축, 종단 신도지도자 배출 등을 위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공고했다.

신도지도자 교육과정은 오는 3월5일부터

5월28일까지 3개월과정으로 진행되며, 조계종 디지털대학 온라인교육과 연수교육으로 마련됐다. 1주에 2강씩 총24강으로 마련된 교육과정은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 역량, 수행·교육 역량, 조직실천지도 역량 등 신도지도자로서 갖춰야할 소양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수강 희망자는 조계종 신도등록자(발심품계)로서 △전문포교사 취득 3년 이상인 자 △일반포교사 취득 10년 이상인 자 중 포교사단 추천자 △부동품계 품수자 중 수행활동 경력 20년 이상인 자 △신행활동 경력 30년 이상인

자 중 중앙종무기관장, 본사 주지,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의 추천자 △선혜품계 품수자 중 재교육 희망자 등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소정양식의 수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2월25일 교육대상자를 발표하며 3월5일 입학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신도 최고 품계로서 지도자급 품계인 '선혜' 품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지난 21일 부실장 인사에 이어 국장단 인사도 실시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신임 국장 스님들에게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을 종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라며 "각 부서 선임 스님들도 새로 임명된 국장 스님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신임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도심스님은 성혜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범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총무원 조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부 문화국장 용주스님은 원행스님을 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

◆신임 국장급 스님들

사로 1996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범종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랑선원, 범종사 범종선원, 선운사 참담선원 등에서 수행정진했다. 호법부 상임감찰 지륜스님은 정안스님을 은사로 1991년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를 졸업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현담스님은 법담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국장, 사서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연동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대안스님은 법경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월명암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금수암 주지를 맡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좋은 칼럼 많이 집필" 본지 논설위원 위촉 불교신문 발행인 지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21일 불기 2560년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스님과 재가자 25명을 위촉했다. 발행인 지승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스님과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논설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좋은 칼럼을 많이 집필해 전국의 불자들에게 좋은 글이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 '염화미소법' 논의 평행선 법안명칭 선거인단확대 등 이견

오는 3월 중앙총회 임시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 '염화미소법(가칭)' 입법 초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계스님)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염화미소법' 명칭 명시, 선거인단 확대, 최종 후보자 수, 후보자 검증 강화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염화미소법' 등이 법률 명칭으로 종헌종법에 명기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자 법등스님은 "염화미소법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추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며 "표현이 거북스럽다면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확대와 후보자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등스님은 321명의 유권자를 51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제정스님은 2000명까지 선거인단을 늘려 선거에 대한 냉소주의와 불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명을 무작위로 추천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인단 규모 확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위원들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2월19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원로의원 면책특권 신설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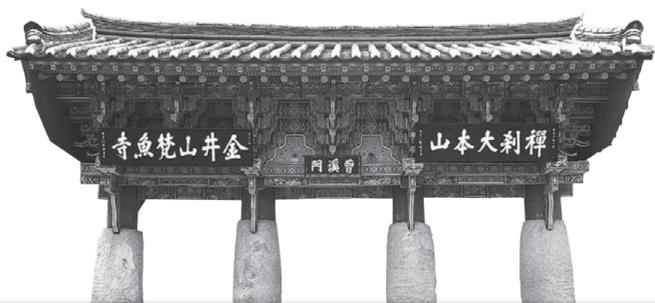
임기 만료시 명예위원은 '긍정'

중앙총회가 원로의원 면책특권을 성문화해달라는 원로회의의 요청에 대해 종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냈다. 중앙총회 종헌종법특별위원회(위원장 조계스님)는 지난 2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13차 회의에서 "중앙총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원로위원의 면책특권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원로회의는 중앙총회에 △면책특권 조항 신설 △종헌개정안 원로위원 3분의 2 동의 시 종헌 개정 △원로위원 만료 시 명예위원 자동 위촉 △출자자 상한연령 폐지 등 4가지를 권고했다.

원로의원 3분의 2 동의로 종헌개정안을 인준할 수 있도록 종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행 만장일치 의결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원로회의마저 표결로써 안건을 가결한다면 여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자자 상한연령 폐지와 관련해서는 총무원·교육원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원로회의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원로의원 임기만료 시 명예위원 자동 위촉 요청은 긍정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lgyo.com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는 2016학년도 승가대학·울학승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승가대학 모집안내

- 모집인원 3학년 00명, 2학년 00명, 1학년 00명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접수기간 ~2016년 4월 2일(토) 까지 (4월 3일 입학예정)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신상명세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서약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은사스님추천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건강진단서(종합병원)1부
사미증 사본1부
반명함판 사진(만의복장, 3×4).....3매
- 준 비 물 대가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지원사항 전 학인 I PAD 및 전자책 무상 지원
- 원서교부 및 접수 범어사 증무소, 범어사 홈페이지

금정총림 범어사승가대학 학장 용학

울학승가대학원 모집안내

- 모집인원 비구 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원 소정양식)1부
수행이력서(본대학원 소정양식)1부
승려증 사본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1부
건강진단서(종합병원)1부
반명함판 사진(3×4) 3매
(종단가사장삼 수한 사진)
입학추천서(본대학원 소정양식).....1부
- 접수기간 ~2016년 2월 22일(월)까지
-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 및 비구계수계자
- 원서교부 및 접수 범어사 증무소, 범어사 홈페이지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금정총림 범어사울학승가대학원 울주(원장) 수진